

오늘의 계시판

오늘의 행사
(29일)
▲SP Steel사 준공식=오전 11시 광주시 관공구 일전동 현장.
▲세너스 전대 개관식=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중흥 2동 북구청 맞은편 세너스. 7개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전국 15번째 지점 개관식.
(30일)
▲2006 한국컨벤션 산업전=개막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업계 종사자 등이 2천여명 참석 예정. 컨벤션마트·국제회의의 유지설명회·컨벤션 심포지엄(김철원 경희대 교수가 '투어리즘 테크놀로지 구축을 위한 컨벤션산업의 가치사슬 체계 창출방안', 영국 브르넬대 박성민 교수가 'IT효과 제고를 위한 컨벤션산업의 테크놀로지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취업설명회 및 취업 컨테스트 등.

김미숙 무용단 공연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2006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개막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 70개·해외 50개 등 120개사가 200개 부스를 설치하고 실버주택·가정간호용품 등 실버 장비·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실버 관광 여행 상품 등을 소개하고 홍보. 12월 2일까지.
▲경로당과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식=오전 11시 광주 갤러리아웨딩홀.
▲사랑의 제갑 온도탑 제막식=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1천3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 목표액 13억. 2007년 1월31일까지 설치.
▲2006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및 장기자랑=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주시지부 서구지회 발대식=오후 3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제 513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

군청 4층 대회의실. 탁운균 LG인화원 상무가 LG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인재육성 방향'에 대해 강연.
공연
▲뿌리 깊은 나무 셋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29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은숙 가아금 병창 발표회=29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장하나 첼로 콘서트 '첼로 소나타 로맨스'=30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제 5회 하모닉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30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우리 산하 아름다운전=29일까지 자리아트 갤러리.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진회원들의 화원전.

▲숲의 이야기전=30일까지 일곡갤러리. 숲을 캔버스에 담은 박유자씨의 개인전.
▲기독교 미술협회전=12월6일까지 상계갤러리. 광주기독교 미술인협회전.
▲신동철 개인전=30일까지 북광주우체국 갤러리. 사할과 남도 풍광을 담은 한국화 작품 전시.
▲스페인, 세기의 거장전=12월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안토니 타피에스 등 스페인 유명작가 작품 40점 전시.
▲수묵회 화원전=29일까지 궁동 상계갤러리. 강형채, 구영주, 김인선, 박안수, 박희석씨 등 수묵회원 작품 전시.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12월1일까지 광주대 예술대 3층 갤러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물 오르다'라는 주제로, 물의 역사·문화·미학·사회학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 김수남·박중우 등 국내작가 9명, 프랑스 마리 폴 네그르 등 해외작가 32명 등 41명 참여. 물 오르다·빗감·영혼의 선물·물의 행상 등 4개 색선으로 구성.
▲광주비엔날레 기념 '순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뉴스퀴즈

40. 최근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이영화가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촬영상·조명상·시각효과상·음향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천300만명의 관객을 동원, 한국 영화사상 흥행 기록을 다시 쓴 이 영화는 역대 개봉일 최대 관객(45만3006명) 등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① 괴물 ② 타짜 ③ 비열한 거리 ④ 짝패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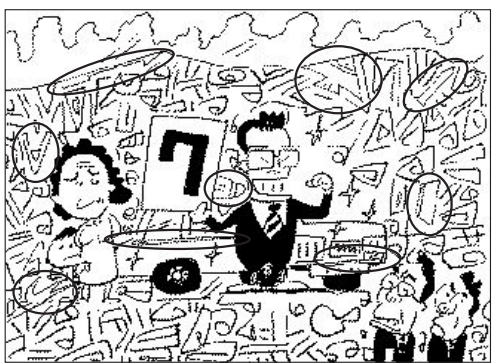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1명, 2위 2명, 3위 3명 등 총 6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연락처변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터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49 >



▲ 지남주 정답

못, 칫솔, 대접, 열대어, 화살, 서투룩, 바늘, A자, 제비



찾아보세요 펜촉, 종이바행기, 병따개, 못, 갈매기, 서투룩, 담배피이프, 고무, 바늘

◀ 여자 몸값? 남자 몸값?

남자가 여자에게 장난을 걸었다. 남자: "여자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여자: "글쎄." 남자: "7100원밖에 안돼. 호박 한 개 2000원, 호박 두 개 1000원, 건포도 두 개 100원, 두 무개 4000원이야." 들고 있던 여자가 즉각 남자의 몸값을 계산했다. 여자: "그럼 남자는 메추리알 두 개 100원, 풋고추 한 개 20원, 총 쓸만한 건 120원어치밖에 안되네."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지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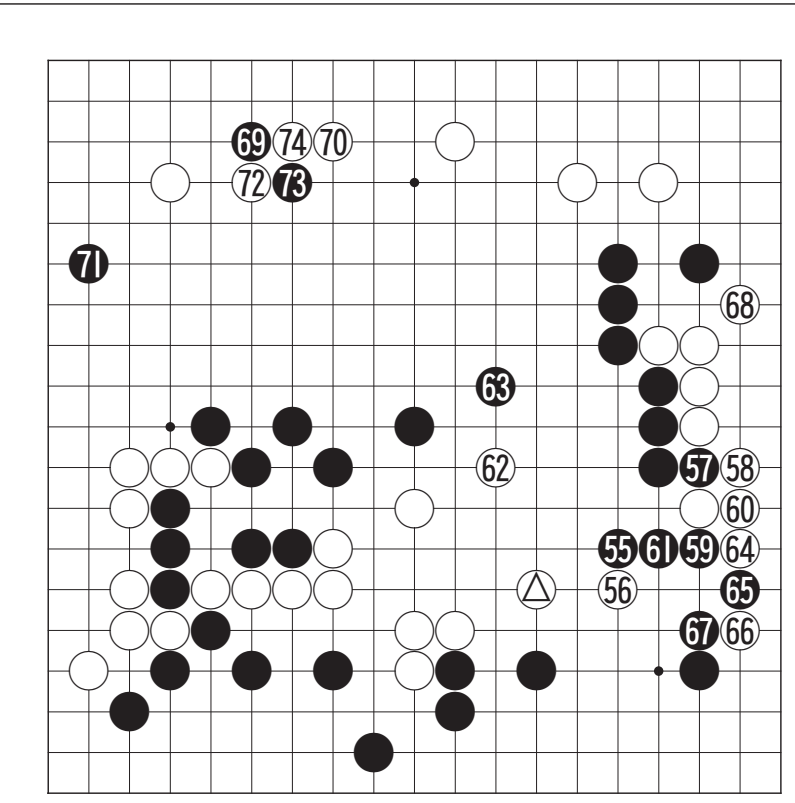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조현선·광주시 서구 풍암동 김광지·광주시 서구 금호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9일(음 10월 9일 壬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바둑대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중수 4보(55~74)
白 이강민 5단 (PGA생명)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백 6로 사각이 성공한 모습이다. 흑 55는 놓칠 수 없는 요소이며 백이 56으로 견제구를 던져오자 유 5단은 흑 57로 필러우변을 결정해 갔다. 그런데 이 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약수로 자중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그냥 불이고 7개자를 선수한 다음 9로 급소를 찔러 백 대마를 압박해야 했다.



바둑소식

김주호, 원익배 3회전 진출
김주호 7단이 지난 27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원익배 입단전 본선 2회전에서 육득진 3단에 게 187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본선 3회전에 진출했다. 김주호 7단은 운소진 3단-김수용 3단의 대국승자와 4회전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김 7단은 1회전에서 이강우 3단을 제압하고 2회전에 올랐다.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이 대회는 제한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다. 4강진출자에게는 차기대회 본선시드가 배정된다. 우승 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 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86>
I had a hell of a good time
엄청 재미있었지
A: How was Mary's party last night?
B: I had a hell of a good time.
A: Did you meet nice guys?
B: To tell you the truth, I fell in love with this guy~
A: 어제 밤 파티에 파티는 어땠니?
B: 엄청 재미있었지.
A: 멋진 남자 만났니?
B: 솔직히 말해서, 난 이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어~
have a good time : 재미있게 보내다 (=have fun)
to tell you the truth : 솔직히 말해서
fall in love with : ~와 사랑에 빠지다.

오하이오 니혼고 <786>
お汁粉(しるこ)でも作ってくれないかな?
단팥죽이라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
A: 今日は、かがみびらきよね。
B: そう言(い)えば、そうだな。鏡(かがみ)もちで、お汁粉(しるこ)でも作(つく)ってくれないかな?
A: そうね、いいわよ。
B: お汁粉(しるこ)って、もちを入れるのもおいしいけど、白玉(しらたま)を入れてもおいしいよな。
A: 오늘은 가가미치로 쪄개서 먹는 날이군.
B: 그리고 보니까 그렇군. 가가미치로 단팥죽이라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
A: 그래, 좋아.
B: 단팥죽은 떡을 넣은 것도 맛있지만, 찹쌀떡을 넣어도 맛있지.
鏡(かがみ)もち: 동글 납작하게 만든 두 개의 크고 작은 것을 포개떡
そう言(い)えば: 그러고보니
お汁粉(しるこ): 팥소 국물에 떡 또는 찹쌀가루로 만든 경단을 넣은 단 음식
白玉(しらたま): 찹쌀가루로 만든 작고 고운 흰 경단

니하오 쑹구위 <504>
怪不得
어쩐지, 과연
A: 你在北京几年了?
B: 今年了。
A: 怪不得你的汉语说得这么流利。
B: 哪有那么好, 还差得远呢。
A: 你经常看电影吗?
B: 经常看电影。
A: 你经常看电影吗?
B: 经常看电影。
A: 怪不得你经常看电影。
B: 经常看电影。
A: 你经常看电影吗?
B: 经常看电影。
A: 怪不得你经常看电影。
B: 经常看电影。

한자 이야기 <504>
木鐸(목탁)
나무 목, 방울 탁
목탁(木鐸)은 글자 그대로 하면, 나무로 만든 방울이라는 뜻이다. 사실 '목탁'하면 절에서 염불을 하거나 대중이 모여 경전을 외울 때 울음과 박자를 맞추고, 수행중인 수도승이 번뇌와 잡념을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목탁이란 말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유교(儒敎)의 논어(論語)에 근거하고 있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周遊)할 때 만났던 의(儀)의 국경 관리인이 공자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처럼 말하였다. "공자가 관직을 잃고 유랑하고 다니는 지금의 처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하에 도덕이 행해지지 않은지 오래 되었는데, 하늘은 공자에게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도를 전하고 넓히는 목탁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이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옛부터 중국에서는 관리나 통솔자(統率者)가 법령과 교령(敎令)을 백성에게 알릴 때 사용하였다. 여기서 전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사회의 지도자, 또는 여론을 형성하고 세상 사람을 교도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사회적 목탁'이라는 식으로.